

세걸음에 세가지 이득을 취하려면...

유난 히 캔 음료를 즐기는 영국은 지난 89년부터 ALCAN 프로젝트를 구상해 실시하고 있다.

ALCAN 프로젝트는 알루미늄 캔을 재생하기 위한 야심적인 계획.

영국이 ALCAN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된 동기는 연간 40억여개에 달하는 빈 캔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였다. 유럽공동체(EC)의 1년 캔 제품소비량 2백 10억개중 약 40%를 영국국민들이 소비하면서도 빈 캔 재생율은 EC에서 가장 낮은 10%에 불과하다. 캔 음료 구입시 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돼 있는 스웨덴의 85%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이다.

ALCAN 프로젝트는 특히 캔 용기의 60%를 차지하는 알루미늄캔을 재생하기 위해 시작됐다. 같은 이름의 ALCAN社 등 5개 회사가 모여 알루미늄캔 재생협회를 창설하면서 지역별로 '중간 고물상'을 열어 알루미늄캔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슈퍼마켓과 식당가 등 캔음료가 많이 취급되는 곳에는 빈 캔만 버리도록 된 쓰레기통을 설치한 이른바 '캔 은행'을 열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환불) 제도를 도입해 먹고 난 빈 캔 한통에 1페니(약 13원정도)를 환

불해 수거율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캔회수·재생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돈 몇푼때문에 바쁜 시간에 캔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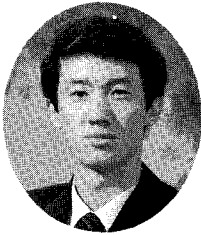
결국 생각해 낸 것은 빈 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였다. 대대적인 홍보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알루미늄캔 재생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쓰레기 전반에 대한 유해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시작해서야 비로서 수거율이 높아지면서 캔 수집에 동참하는 기업과 단체가 늘어났다.

ALCAN 프로젝트는 이제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EC국가들도 동참하는 범EC차원의 프로젝트가 됐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 되면서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쓰레기 분리수거가 뒤늦게나마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폐기물 예치금제가 도입되고 폐기물 재활용 관련법이 제정되는 등 갖가지 쓰레기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앞서 말한 영국의 알루미늄캔 재생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특



여동욱
(CBS 사회부 기자)

히 쓰레기문제는 이를 버리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 어떤 훌륭한 정부의 정책이 쓰레기를 버리는 한사람의 실천적 노력보다 효과적인 수는 없다.

쓰레기문제는 국민들의 높은 인식아래서야 그 해결의 빛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인식은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야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알루미늄캔 재생사업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비로서 매듭을 풀 수 있었으며 이어 영국 정부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한 'Duty of Care' 즉, '의무적 주의사항'이라는 구체적 행동강령이 포함된 '환경보호법'의 선포가 뒷받침돼 성공할 수 있었다. 국민의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뒷받침된 훌륭한 사례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국민 홍보활동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대국민 홍보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계도적인 차원보다는 정책 자체에 대한 홍보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민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목에는 공공청소 행정분야가 포함돼 있으며 오오사카는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각장과 매립지 시설을 개방하는 등 연간 5만여명의 국민학생이 쓰레기 처리장을 견학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실험·실습을 통해 폐수와 폐기물 처리 방안에 관해 직접 연구



최근 한 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학교 쓰레기 수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쓰레기분리수거를 가장 먼저 교육시켜야 할 학교에서조차 비분리 수거율이 40%에 달해 우리의 환경교육은 실천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학교의 환경교육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최근 한 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학교 쓰레기 수거형태를 조사한 결과 쓰레기분리수거를 가장 먼저 교육시켜야 할 학교에서조차 비분리 수거율이 40%에 달해 우리의

환경교육은 실천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환경정책 기본원칙 가운데 三同步 三效益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건설, 도시·농촌건설, 환경건설이 동시에 계획, 실시, 발전돼 경제효익, 사회효익, 환경효익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한 말이 될 지 모르지만 우리의 쓰레기 정책에도 이말이 적용되면 어떨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실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재활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3가지의 효익이 나타나는 것.

대표적인 쓰레기오염 사건으로 일컬어 지는 미국의 'LOVE CANAL' 사건을 상기하며 어쨌거나 정부의 쓰레기 정책이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